



포용적 복지와 사회통합의 방향

김미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자로의 질문에 공자는 정명(正名)이라고 대답하였다. 시인 김춘수의 꽃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름(名)이란 존재 가치나 의의(意義)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사물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고, 의미를 얻게 됨으로써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이름(正名)은 명분에 걸맞은 각 주체의 역할과 행위가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각 정부는 복지에 관한 정명, 곧 복지 철학을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포용적 복지

(Inclusive Welfare)’를 경제정책 및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정명)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각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고 있었던 정명에 대한 평가는 상이할지 모르지만, 하위 복지정책 수행의 ‘나침반’이자 ‘등대’ 기능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애스모글루 외(Acemoglu & Robinson, 2012)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책의 논지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애스모글루 등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국가의 공통점은 포용적 정치제도(시민의 기본권과 안전 보장, 참여적 민주주의, 정치·사회 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와 포용적 경제제도(시장 참여의 기회 보장, 독과점 폐지를 통한 지대 추구 근절,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포용적 정치제도 → 포용적 경제제도 → 창조적 파괴와 혁신 → 지속적 성장으로 귀결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에서 포용적 제도를 채택하느냐 착취적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발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세계 각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입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은 어의적인 측면에서 대구를 이루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포용적 복지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 구조와 유사하다.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역량 증가] → 투자 증가 → 일자리 증가 → 소득 증가’라는 소득주도성장의 논리 구조는 포용적 복지에서도 성장과 복지 간의 선순환 흐름으로 유사하게 주장되고 있다. 굳이 양자 간의 차이점을 부각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시장(또는 경제)의 관점에서 주장되고 있는 반면에 포용적 복지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접근한다는 측면이다.

포용적 복지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누리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포용이란 강물을 차별하지 않는 바다와 같다. 바다는 맑은 강이나 더러운 강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정화하여, 깨끗한 수증기를 다시 더러운 강이나, 맑은 강을 구분하지 않고 나누어 준다. ‘해와 달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다’. 목가들의 겸조(兼照) 사상이다. 겸조 사상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 곧 포용적 복지이다. 포용 복지의 개념에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라는 표현에는 보편주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철학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포용이 ‘관용(tolerance) ⇒ 수용(acceptance) ⇒ 변용(transformation)’의 단계를 통해 성숙(성경통 외, 2017)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포용 복지의 출발점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통합은 포용복지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사회통합은 포용복지의 결과이기도 하다. 포용복지라는 철학이 정책화되고 집행된 결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통합된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통합은 포용복지의 출발점이자 결과이다.

바다, 해와 달의 포용 정신이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지표 등을 살펴볼 수도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한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다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특수지역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로 분리된 우리나라 노인들과 앞 칸, 중간 칸, 꼬리 칸으로 구분된 영화 ‘설국열차’와 무엇이 다른가? 통합이 아니라 분절이다. 또한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양극화, 새로운 계급 또는 그를 표상하는 ‘충(蟲)’과 ‘냄새’와의 전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영화 ‘기생충’이 던지는 메시지다. ㉮

참고문헌

- 성경룡, 김재훈, 김현철, 박능후, 박영범, 송재호, ... 한동환. (2017).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21세기북스.
- Acemoglu, D. & Robinson, J. A. (2012). 국가가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최완규, 역). 서울: 시공사. (원서출판 2012).